

농촌지역의 자치조직을 통해 본

협동관계의 변용*·**

- 한일 농촌마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권 병욱***

(e-mail : kwon-b@hanmail.net)

目 次

1. 들어가는말
 2. 조사지의 개요
 3. 농촌마을의 자치조직의 역할과 구성
 4. 협동관계의 조직
 5. 결론과 시사점
-

I. 들어가는 말

현실경제에 있어서 세계화, 개방화정책은 세계질서구조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경향으로 제기되고 있다. 농업측면에서 WTO 및 FTA 체결에 의한 농축산물 개방의 압력도 당연한 귀결이다. 아울러 국내 농축산물의 시장경쟁력약화와 농촌사회의 경제적 여건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농축산물 개방이 농촌사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농업경쟁력의 악화로 인한 소득의 감소는 농촌지역의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을 심화시키고 그 결과 노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여 농촌지역의 생산활동 둔화와 생산성 저하에 따른 농촌사회의 급

* 본 논문의 제목은 일본 지역사회학에 발표된 陸麗君(1996)의 자치조직으로부터 본 부락내의 협동관계의 변용에서 인용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일본의 사례는 전적으로 동 논문에 의존하였다.

** 본 논문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지원사업(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마을연구단)“충남지역 마을공동체의 정체성(2차년도)”의 연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마을연구단 전임연구교수

격한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 인구의 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에 대한 충성심과 일체감, 신뢰가 강조되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2차적 관계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하여 합리성을 중시하는 인간관계와 그에 부응하는 협동관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일농촌사회에서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관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추론하는 것이다. 농촌생활의 영역에서 협동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생활의 방편이다.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상호협동을 통하여 해소되고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장치는 매우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마을의 자치조직에 의한 협동관계로 한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연구에 활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자료의 검토와 인터뷰이다¹⁾. 전자는 일본의 농촌사회의 자치조직에 의해 조절되는 협동관계의 이해와 검토에, 후자는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협동관계에 대한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조사지H마을과 일본의 A마을에 대한 개황을 기술하고 있다. 3장에서는 양마을의 자치조직의 구조와 자치조직이 수행하는 역할을 살펴보았다. 4장은 각 자치조직이 실시하는 협동관계의 내용과 변화과정을 분석하였으며 5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시사하는 점을 요약하고 향후 경향을 추론해 보았다.

2. 조사지의 개요

본 연구에서 조사지의 선정이유는 약간씩 상이하다. H마을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지역으로, 전형적으로 농업에 기반한 농촌 마을이면서 동일종교를 삶의 근간으로 하는 교우촌으로 그 종교를 기반으로 자치조직과 협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일본의 A마을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면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작업에 있어서의 협동이 잔존하고 생활면에 있어서도 마을내에 긴밀한 연대가 존재한다고 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1) 한일양국 마을의 비교연구에서 일본의 사례는 陸麗君(1996), 自治組織からみた部落内の協同関係の変容, 地域社会学会年報 8集 181-203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한국의 사례조사는 2006년 말부터 2008년 초에 걸쳐 이루어진 사례지역(H리)의 마을 주민들과 임원들에 대한 인터뷰조사에 기초하였다.

H마을은 충남북부지역에 위치하는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이다. 일찍부터 수리시설이 발달하여 수작농업에 적합한 환경이었으며, 전체 주민이 동일한 신앙을 근거로 단결과 협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생산활동 역시 주민들의 상호보완적 협동활동에 의해 해결해온 마을이다. 1996년에 H마을의 총가구는 134가구이며 마을인구는 전체 422명으로 남자가 205명 여자가 217명으로 여자의 비율이 약간 높다. 총 134가구 가운데 논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가구가 70호이고 겸업농이 20호인데, 겸업농은 마을내의 농지내에서 농업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상업이나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가구를 이른다. 농가 경작지의 대부분이 논으로 경작규모는 최대 25,000평에서 1,000평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며 평균 경작규모는 3,000여 평에 이른다. 또 각 가구는 500-100평 남짓한 텃밭을 소유하고 있어 배추나 무등을 재배하여 일상생활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한다.

마을의 인구는 197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H마을의 인구감소경향은 현저하여 마을노동력의 구성이나 협동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농촌사회의 생산활동이 마을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조직되는 협동관행에 의해 유지된다고 할 때, 인구의 변화는 그러한 재래적 관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농촌사회에 상존하는 인구는 마을 내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는 근간을 이루며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키 때문이다.

한편 A부락은 일본 나가노현(長野県) 마츠모토(松本)시의 남부에 위치하는 마을로 107가구가 거주한다. 농가호수는 57호이고 그 가운데 전업농가가 6호, 겸업농이 51가구이다. 1990년 현재 경작지 규모를 살펴볼 때 0.3ha 즉 1,000평 미만인 가구가 12가구이며 1,000-1,600평 미만인 가구가 10가구, 1,600평에서 3,000평 미만의 경작지를 보유한 농가가 24가구로 가장 많다. 3,000평에서 4,600평 미만이 8가구, 4,600평 이상이 3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A마을에는 전통적인 자치조직이 존재하여 그 자치조직을 통하여 마을내의 협동관행을 조직하고 주민들의 삶에 개입하기도 한다.

3. 농촌마을 자치조직의 구성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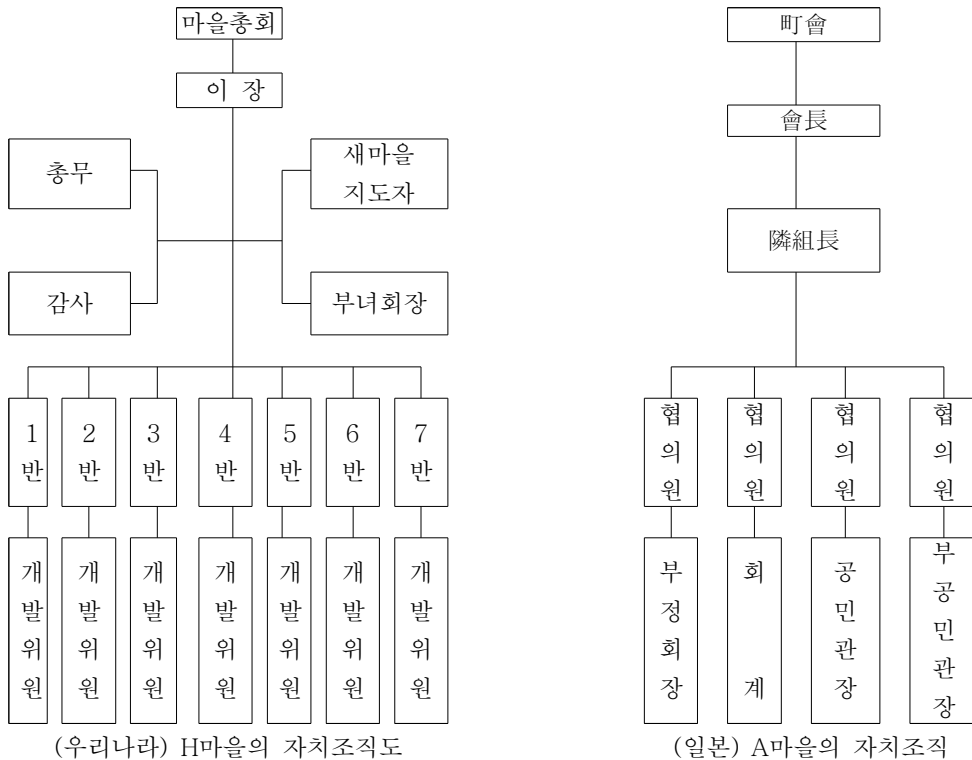
한 사회의 자치조직은 다수의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며 각 구성원은 선별기준에 의하여 성원자격을 획득하고 그 성원을 규제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다. 농촌사회의 조직이란 일정의 지역 내에서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협력,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구성원의 욕구를 충족한다(Moore 1970, 235).

농촌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성별 혹은 연령별로 친목과 협동을 목표로 하는 조직들이 있으며, 이들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간의 협동을 유인하는 조직들이 있다. 이러한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의 목적에 공감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의사를 가진 사람들이며, 조직의 발전과 유지를 위한 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마을 조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자치조직이다. 자치조직은 상위의 행정조직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직되는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으로 지위와 역할이 부여된다. 마을 내의 모든 가정을 포섭하며 거주자들을 구성원으로 마을이 직면하는 공동의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마을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따라서 의사진행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의사 진행자를 둔다. 마을에 따라 이러한 자치조직의 명칭은 약간씩 차이를 나타내며 시대에 따라 명칭과 역할이 달라지기도 한다.

H마을의 자치조직은 마을총회라고 호명하며 모든 가구가 마을총회의 성원으로 각 가정 당 한 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구성한다. 민주적인 절차로써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이장이 마을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며 이장 밑으로 총무와 감사를 두어 마을회의의 진행을 보좌하고 동재(洞財)를 관리하며 감독한다. 그리고 마을의 하위단위로 10~15가구로 이루어지는 반(班)이 있으며 반장이 반을 대표한다. 반장은 이장의 지명이나 반 구성원들의 권고에 의해서 임명되어 이장과 총무, 감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들과 더불어 마을 임원을 구성한다. H마을은 현재 1명의 이장과 그 휘하에 7개 반 7명의 반장, 그리고 각 반에 1인의 개발위원을 두어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개발위원들은 반장들과 더불어 마을의 행사나 사업을 기획·결정을 하고 총무는 총회의 의사기록 및 재정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마을총회를 주관하는 이장은 행정기관에서 하달하는 공문서의 전달, 홍보, 지시·감독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주민의 거주실태를 파악하고 출생사망신고등의 호적업무를 대행한 행정의 말단기관이었다. 최근에는 행정간소화라는 명목으로 업무이관이 이루어 졌다. 한편 사회노동력의 일부를 관장하여 마을자체의 사업이나 환경정비등의 부역에 노동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 외에 마을에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이 동사(洞事)에 참여하여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는데 이들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은 1970년대 정부주도형 새마을운동을 지휘, 감독하던 마을의 리더로서 그 위상도 매우 높았지만 새마을 운동의 쇠퇴와 더불어 그 역할이 매우 축소되었다. 그러나 부녀회장의 경우 마을의 대소사에서 부녀자들을 조직하고 음식을 준비하거나 노인들을 접대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그림1 한일 농촌마을의 자치조직 표



이러한 경향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 농촌사회의 대부분의 경우 자치기구인 마을의 수리나 공유산림등을 물질적 기반으로 한 촌락공동체적인 집단에 의해서, 또 부락이 하나의 농업생산의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 의해 보장되고 유지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자치기구는 시대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면서 전 부락주민의 생산, 소비, 사회관계라는 생활의 모든 면을 포괄하고, 독자적인 자치조직으로서 마을의 운영을 구축해 왔다.(松原, 余田 소화43년,p80). 이러한 자치조직은 村寄合라는 명칭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자치제 초안이 제시되면서 부락총회로 그리고 町會로 변화해 왔다. 이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子供組, 若者組, 中老組등 연령집단에 따른 조직들이 존재하며 부락행사를 주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락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부락총회를 개최하며 하부조직으로 조(組)를 구성하고 부락독자의 재정을 통하여 사업을 전개하였다.

A마을의 경우 1954년까지 마을의 자치조직을 부락회(部落會)라고 칭하고 그

조직을 관장하고 운영하는 대표자를 구장(區長)이라고 불렀다²⁾. 물론 마을에 따라 구장이라고 호명하는 대신에 조장이 그 역할을 대신 하기도하는데, 구장은 부락의 자치운영 자체이며 부락의 통일을 도모하고 부락주민의 생산, 소비 생활상 사회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기관의 말단 조직으로서 징세나 통계조사, 토목 및 위생사업등 상급기관의 하청사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1954년 8월 이후 인근의 마을과 합병되면서 부락회를 町會라 하고 그 대표자를 町會長라고 부르게 되었다.

A마을의 町會는 정기총회와 중대사가 발생할 경우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부락임원의 선출, 예·결산의 심의 결정, 부락행사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고 부락의 규약이 결정된다. A마을의 경우 이러한 마을총회를 신년회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다. 따라서 신년회는 한해의 町會의 결산보고와 차년도의 예산심의 및 결정이 이루어지며 마을임원을 선출한다. 이는 당해의 初總會를 일컫는 것으로 마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 행사의 준비는 부녀들이 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참가하여 친목을 도모한다. 이러한 町會의 역할과 기능은 H마을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町會의 조직은 정점에 町會를 위치시키고 町會長과 隣組長, 네명의 선출직 협의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협의원들이 副町會長과 회계, 공민관장과 부 공민관장을 겸하면서 마을의 협동관계를 조직하고 지휘하는 것이다.

4 협동관계의 조직

1) 70년대 이전의 협동관계

마을은 다양한 퍼스넬리티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지고 그 구성원들은 각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고안한다. 마을은 교류의 장이며 문화의 장이다. 주민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고 애경사를 위로, 축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동을 수반한다. 제반 행사가 마을의 구성원들과 복잡하게 연대하는 장치들에 의해 발전되고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면하는 개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契)를 조직하기도 하며 공동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다양한 성원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주로 마을 전체의 공동작업이나 공동의

2) 1889년(明治22년) 町村制실시에 의해 인접하는 몇 개의 村을 합하여 町村이 되고 각 촌은 행정구역으로서 부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 까지 부락은 그 기능이 약해 지면서도 마찬가지로 자치적 기능을 유지해 왔다. 당시 부락의 자치기구인 부락회로서 전 부락주민의 생산, 소비, 사회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부락 3역(구장, 부구장, 회계)과 협의원, 조장(組長)으로 구성된다. (松原治郎, 余田博通(소화43년) [農村社会学] 川島書店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마을의 자치조직에 의해 요청되는 전통적인 협동방식이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것이다.

H마을은 농사를 주 경제원으로 살아가는 농촌마을로 주민들의 대다수가 논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논농사를 중심으로 서로 협동관계를 조직하고 운영해 왔다. 농사와 관련한 마을의 협동관행에는 ‘품앗이’, ‘두레’와 ‘부역’등 재래적 방식이 있다. 품앗이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작업집단으로 성원의 규모가 작고 자유롭게 편성되어 유동적이기 때문에 자치조직의 통제를 벗어난다.(崔在律 1988). 대신 두레는 모심기와 논매기(제초작업)에 활용된 노동조직으로 1960년대 말까지 존속되었던 전통적인 농사관행이다. 이 두레의 결성은 마을총회에서 이루어지며 노동력을 확보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각 가정의 대표자가 참석한다. 그러나 60년대 말이 되면서 이 관행이 사라지고, 이후로는 반별로 조직된 ‘동굴레’가 마을의 협동 작업을 주도한다.

동굴레는 서해안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며 협동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력을 동원하는 조직인데 H마을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이다. H마을의 동굴레는 4개 반을 중심으로 하는 네 개의 동굴레가 조직되었는데 1개 반을 15-16가구로 상정할 때 1가구당 가용 노동인구 약 2-3명의 출력을 고려하면 1개 동굴레 당 약 30명에서 많게는 40명이 성원이 된다. 이 동굴레는 주로 논농사의 중심을 이루는 모찌기, 모심기, 논매기등에 활용되었는데 동굴레를 운영 하는 반장이 이를 관장하였다. 반장은 마을회에서 위임되어 반원들에 의하여 선출되며 동굴레를 총괄하고 반장 밑으로 총무를 두어 동굴레의 출력(出力)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노동력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출력자(出力者)들의 일일임금은 마을총회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H마을에서 농로의 보수나 수로 관개시설의 정비(보매기)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일은 부역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마을의 이장이 부역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들에게 공지하면 주민들은 삼과 곡괭이를 지참하고 행사에 참여하며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마을의 도로보수나 마을회관의 보수사업, 마을의 제초작업도 마을회에서 주관하는 부역을 통하여 노동력을 동원한다. 이러한 협동작업을 기피한다고 해서 강력한 제재나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을의 유지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재래적인 관행에 의해서 협동을 조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일본의 A마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마을의 경우에는 주민들 상호간에 노동력을 제공하여 협동관계를 모색하는데, 마을총회의 동원에 의한 부역과 ㄱ1(結)가 대표적이다.³⁾ 町内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 이용해

3) ㄱ1: 모심기, 지붕 새로이르기, 된장담기등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경우 상

야 하는 일들이 존재한다. 그것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노동이 필요하며 자치적으로 공동노동을 조직한 것이 마을일에 노동력을 동원하는 부역이다. 부역은 주로 도로보수나 용수로의 정비등에 이용되거나 사방공사나 공유재산시설의 보수, 공유산림이나 경지에 출역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의 장치인 셈이다.

한편, 그이(結)는 농가 노동상의 일종의 노동력의 대차관계로 우리나라의 품앗이와 유사하다. 특히 농번기에 있어서 보족적으로 結에 참가함으로써 다른 가구들과 결합하며, 유대를 강화해 가는 농촌노동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농업노동에 있어서 대개 동등한 노동력의 교환, 호조(互助)의 관행을 지칭하지만 임노동이 일반화하기 이전의 노동조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松原의 113). 물론 일본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두레에 해당하는 부락단위의 공동노동력을 동원하는 닌소쿠(人足)가 존재한다⁴⁾. 그러나 A 부락의 경우 結는 주로 묘판 만들기, 모내기, 수확하기등의 농작업에 활용된 관행으로 A부락에서는 52가구(85.2%)가 이를 통한 농작업에 있어서의 노동력을 조달한다. 대개 한 가구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결합되는 관계로 지붕 이르기, 집수리, 장례식 등에서도 유이를 통하여 협동하는 것이다(直江 1972, 768)

町會는 그이(結)의 방식을 부락민들이 합의를 통하여 형성하였으며 모심기에 있어서 일일 총 노동시간의 결정이나 노동력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의 일당에 대한 금액을 결정하였다. 이 경우 부락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부락민들은 이를 결정하는 총회에 직접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농업생산과의 관련하여 농촌생활면에서 전개되는 활동이 있다. 대체로 가을 운동회와 경로의 날 행사 그리고 망년회나 신년회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행사들은 마을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부락총회의 성격을 띠는 신년회를 마치면 술을 마시면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분위기를 돋우며 서로 마을의 구성원임을 확인하는 교류의 장이 되는 것이다. 농한기에 접어들면 각종 학습회가 개최된다. 취미나 교양을 위한 강좌등이 실시되는 것이다. 한편 마을의 환경정비를 위한 수로의 정비를 통하여 농지용수로서만이 아니라 소방용수로서 사용하기 위하여 농가 비농가를 막론하고 1년에 한번 隣組단위로 청소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처럼 60년대 말 70년대에 초에 있어서 농업생산에 있어서 노동력의 조절

호간에 노동력을 빌리는 것. Naoe niroharu(1972) 結, 大が民俗学会 日本民俗事典 718, 통문당

4) 이것은 한 집에 한명씩 노동력을 제공하여 공동작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마을의 도로보수, 길따기, 공동청소등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유이는 농작업 가운데서도 모심기와 추수에 가장 잘 이용되었다고 관찰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조직과의 관련 속에서 이 관행은 기록되고 있지 않다.

과 조달이라는 업무가 자치조직으로서의 마을총회, 혹은 町會의 중요한 업무였다. 다시 말해서 이들 자치조직은 두레(동굴레)나 古(結) 집단단위에서 담당했던 생산상의 협동관계를 마을단위에서 통합·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陸 1996, 181). 아울러 마을의 자주적인 운영을 통하여 실시되는 각종 노동력 동원사업이 마을회 혹은 町會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2) 전통적인 협동관계의 쇠퇴기(1970-1980년 경)

70년대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급격하게 밀려든 시기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신무(神武)경기 혹은 이와토(岩戸)경기라고 할 만큼 급격한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농업생산이나 농촌사회에 급격한 변화가 밀어닥친 것이다. 산업사회의 일자리를 찾아 離農현상이 일반적인 경향이 되면서 농촌사회의 축소와 노동력 부족이 직접적으로 농촌사회의 변화를 초래한 것이다. 반면에 한국에 있어서 이 시기는 농촌 잘 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새마을 운동과 산업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과도기로서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향했던 복합적 시기로 특징지워진다⁵⁾.

새마을운동 초기에 대부분의 마을은 개발위원회를 결성하고 각 마을의 환경개선사업을 주민 협동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주로 지붕 개량, 담장 쌓기, 농로 확장 및 보수 등이 주요 사업이었으며 마을에서는 새마을 지도자를 선출하여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였다. 새마을운동은 대통령의 지시로 마치 법과 같은 강제성을 띠고 진행된 운동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비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던 시기인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마을회의 조정에 의한 협동관계의 내용은 마을 진입로 확장, 마을 앞 소하천 뚝 보수 및 관리, 마을 청소 및 하수구 파내기, 공동우물 및 공동 빨래터 만들기 등으로 정리된다. H마을의 새마을 운동은 농로 확장, 지붕 개량, 마을 진입로 확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마을의 사업은 반 강제적이지만 무상 협력을 도모하고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여 추진되었다.

한편,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심각한 식량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수확종인 통일벼를 개발하여 전국적인 보급에 급급했지만 통일벼의 생산을 위한 농약이나 각종 동력식 농기구의 보급은 전통적인 협동방식으로서 두레나 동굴레의 쇠퇴를 초래하고 노동생산성이 급격하게 증가한 동력기계의 이용이 활발해진 것이다. 이 당시 H마을의 협동관계에서 마을회가 주도하는 경험은 새마을 운동의 조정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 시기에도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마을

5) 새마을 운동은 1970년대 초,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된 농촌 개량운동으로 근면·자조·협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총회의 개최나 마을회관의 설립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동원은 존재했지만 마을의 노동력의 협력방식으로서의 두레나 등굴레의 쇠퇴는 현저한 것이다. 대신 농기계의 보급에 따라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별 협동관계가 등장하면서 전통적 협동관행과 병존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조직에 의한 협동노동의 위세는 마을의 공동작업으로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일본의 A마을의 경우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협동관행으로서의 그이(結)의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이(結)의 쇠퇴를 초래한 직접적인 요인은 동시기에 동력 전직기의 보급의 영향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즉 A부락의 경우 대부분의 농가가 동력 전직기를 구입하여 그이(結)에 의한 모심기가 불필요 해 졌던 것이다. 따라서 町會의 그이(結)에 관한 합의 형성과정의 필요성이 사라지고 이 시기에 있어서 A부락의 농업생산에 있어서 협동관계는 그이(結)에 의한 공동 모심기라는 형태로부터 몇몇 가구단위의 기계의 공동구입, 공동이용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한다. 특히 1971년의 쌀의 생산조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농업기계의 보급에 의한 농작업의 성력화, 농업외 고용의 증가라는 요소들이 가해져 A부락의 겸업농의 수가 증가하고 농업을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가와 제 1종 겸업농가의 비율은 급격히 저하했다⁶⁾. 따라서 농업생산은 부락의 공통관심사의 위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다. 결국 기존의 町會의 노동력 조절기능이나 협동관계의 통합·유지라고 하는 역할은 그 존립기반을 상실하고 町會의 활동이 농업생산의 국면으로부터 소외되고 町會의 활동은 필연적으로 생활의 국면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町會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마을 근처에 공장공원단지와 공장단지가 입지하면서 부락내의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간에 발생한 토지매수의 교섭에서 마을의 자치회의 중개 조절을 담당하는 일이다. 물론 단지가 완성된 이후에도 町會는 새롭게 이주해 오는 주민들과의 문제해결에 솔선해야 만했다. 특히 단지에 새로운 자치조직의 구성에 따른 혼주화의 문제는 부락의 축제에 참가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돌입하게 되면서 町會에 의한 협동관계의 양상은 크게 바뀌게 된다. 즉 종래의 町會가 농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농촌 고유의 자치조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있어서의 町會는 농가와 비농가를 함께하는 지역주민이라고 하는 형태로 포섭하는 지역사회의 자치조직이라는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陸 1996, 193)

3) 마을자치조직의 새로운 움직임(1980년대 이후)

6) 1972년에 마즈모토(松本)시에 오오쿠보(大久保)공장공원단지와 1973년에 西南공장단지가 건설되면서 지역의 노동력의 고용에 미친 역할은 크다. 陸은 전업농가와 제 1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34% 저하했다고 기록하고 있다(陸 p 190)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후진국대열에서 벗어나면서 수입개방의 압력을 받고 우루과이 라운드(1986-1993)로 대표되는 수입개방의 압력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하락의 영향권에 놓이게 된다. 특히 UR협상에서 농업분야는 각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분야로 한국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가운데 우리나라 농촌의 사활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었다. 특히 90년대를 전후한 마을의 협동관계는 지난 70년대와는 별개의 형태로 구축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협동관계를 형성한 것은 다양한 작목반의 결성으로 나타난다. 작목반은 각 군청의 기술센터의 지원에 의존하는데 축산농가의 경우 축종별 작목반이 있고 통합형 시설 원예작목반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생산물을 농협의 지원에 의하여 계통출하를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직된다.

H마을의 주민 간 협동관계에서도 작목반을 통해 조직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논농사 중심마을로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일부의 가구가 가입하여 구성원 간의 협동관계를 조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마을회에 의한 농업생산에서의 협동관계는 거의 보이지 않고 단지 마을 안길 청소하기, 마을 꽃길 가꾸기 등 환경정비에 크게 의존한다. 전 주민에 의한 협동관계의 단서는 마을 어른들에 대한 경로잔치와 면 대항 체육대회 정도이다.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면 마을회와 청년회, 부녀회가 협동적으로 일을 치루는 것이다. 경로의 날 행사나 마을 대항 체육대회는 대부분 마을의 전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의 단결된 모습을 선전하거나 협동을 통하여 단결력을 외부에 과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마을회는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정진시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마을의 자치조직에 의한 협동관계를 강화한 것은 마을의 공동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한 경우이다. 즉 H마을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의 설립이 계획되면서 공동의 넘비현상에 대응하는 주민들은 반대데모를 주관하거나 처리장 시설자와의 보상교섭에 마을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이 시기의 마을내의 협동관계는 1981년에 시작된 부락범위의 기계의 공동이용이 그것이다. 그리고 농업생산에 있어서 새로운 협동관계의 결성과 더불어 마을자치회의 활동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모색되는데 A부락의 御嶽講의 부활이다.⁷⁾ 御嶽講는 木曾의 御岳山에 있는 御嶽神社의 御嶽권현을 신

7) 講는 촌락공동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며 그 형태는 실로 다양하며 사람들의 생활, 집단사회, 종교, 신앙, 신사와 지연, 사람들의 자세 등 촌락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연구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며, 講는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결성된 것과 신앙을 모토로 하지 않는 경제나 정신의 상호협력을 같이하는 집단으로 결성된 것으로 나누어진다. 講에

양하는 講이다. A 부락에서는 전 가구 참가로 講頭가 선두에 서고 여름과 가을에 두 번 실시하는데 이 행사를 실시하는 단위는 隣組이다. 8월의 행사에서는 제비뽑기로 정해진 畵屋가 질병을 퇴치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 감주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정해진 代参者 3인이 木曾의 御岳山에 간다. 이 참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정으로부터 걷는 講金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행사가 60년대 초에 부락주민들의 고령화등을 이유로 소멸되었다. 중심적인 것은 이 행사에서 참배가 대참자(代参者)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가 1980년경부터 代参은 町会の 업무가 되고 그 임원이 代参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또 그 시기부터 대참의 비용역시 講金으로부터 町会費로 이관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마을의 행사를 부활시키고 주역을 담당한 町会の 의도는 마을 주민들간의 희박해진 협동관계와 주민간 연대감을 새롭게 도모하고 대화와 교류의 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5 결론과 시사점

이상으로 살펴본 한일 농촌사회의 자치조직과 그 조직들을 토대로 전개되어 온 협동관계를 개괄해 보았다. 주목할 것은 한일 양국의 농촌에 있어서 협동관계는 전통적인 규범이나 관습에 기초한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협동관계에서 농업기계 등 농기구의 보급에 따라 농업생산에서 담당해 왔던 협력관계의 역할 기반을 상실한 점이다. 즉 H마을의 협동관계가 마을총회의 조정에 의한 두레 혹은 둥굴레를 중심으로 하는 관습적인 협동관계에서 농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별 협동관계로의 변화이다. 물론 마을내의 공공사업으로서 마을총회의 동원에 의한 부역의 양상은 그 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을내에 활용되고 있다. 또 특정시기로써 새마을 운동기를 맞이하여 제도적으로 협동관계가 조직되는데 정부의 강력한 지시에 의한 마을내의 환경정비로 마을 주민들에 대한 의무로서의 협동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을총회의 결의에 의한 협동관계는 경로잔치나 마을 대향체육대회, 경로관광이 주종을 이룬다. 주로 음식의 준비나 식당의 정돈, 노인들의 초대가 행사의 주 내용이 된다. 특이한 것은 마을 내에 새로운 시설의 진입에 다른 공동대처의 국면에서 나타나는 협동관계의 변용도 눈에

이해서 일가족이 서로 이산을 나누어야 하는 일이나 자본이 없어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해져 회사로 까지 발전한 경우, 일생 한 번의 효행이 가능해 졌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끈다. 특히 신앙과 관계없이 생활의 상호부조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頼母子(たのもし)講、むじん、등 신뢰관계로 형성된 講가 대표적이다.

된다.

일본의 A마을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진행을 보이는데 초기의 협동관계는 관습적인 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규범에 의한 협동관계에서 그 후 농기계의 보급에 따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관계로 변용되어지고 80년대 이후 전통적인 행사의 부활에 따른 협동관계로 변모해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일 농촌사회에서의 협동관계란 시기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정책의 흐름이나 마을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협동관계도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시야에 둘 때 향후 마을내의 협동관계는 1차적 연대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성이라는 미명아래 변용되어질 것을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본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전통의 부활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협동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동관계를 문화적 협동관계로 규정하며 다양한 지역축제의 양상이 그 성격을 나타낼 것이다.

【参考文献】

- 국립민속박물관(1994), 『한국의 두레』 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13
 金東一(1982), 『農村住民의 삶의 質』, 한국농촌개발연구원
 권병욱(2005), 「신뢰의 경제사회학적 분석」 아시아연구
 문옥표(1996), 일본의 농촌사회-관광산업과 문화변동- 서울대학교 지역연구총서(5), 서울대학교 출판부
 박서호(2001), 『지역개발론』 오정문화사
 안용산(1993), 『금산의 두레노동』 금산문화원
 양희수(1967), 『韓國農村의 村落構造』 고려대 출판부
 이만갑(1981), 『韓國農村社會研究』, 다락원
 陸麗君(1996), 「自治組織からみた部落内の協同関係の変容」地域社会学会年報 8 集 181-203
 直江広治(1972) 「結」, 大が民俗学会編 『日本民俗事典』 718, 통문당
 長谷川昭彦(1981), 「相互扶助慣行と農村自治」 『村落社会研究』 17
 中川 剛(1980), 『町内会』 中央公論社
 松原治郎, 余田博通(昭和43年) 『農村社会学』 川島書店
 Coleman, J(1990),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Gouldner, A(1960),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1-179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Y: Free Press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1-24
 Portes, Alejandro and Sensenbrenner, Julia (1993),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6) 1320-1350.
 Wooll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151-208

要 旨

本 研究は韓国と日本の農村地域において見られる協同関係の変化と受容を調べたものである。伝統的に言えば、兩國の協同関係は農業生産に基づいて成される。単独には 解決できない問題が村の自治組織により、共同に解決され、住民間の紐帶を強める方式をとっている。このような伝統的な慣行は兩國に非常に類似な形で残されていることを確かめたのが本研究の大きな収穫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このような慣行も時代によって変容していく。

産業社会の渡来や進行にともない、現代的な 農器具の普及がそんな慣行の変化を導いた重要な要因である。70年代の前には農村地域の農事慣行こそが 協同関係の 典型であると言え 80年代以後には 農機械の 所有によって作り出した 協同関係が特徴的である。まだ 80年代 以後には村の伝統のよみかえり、また 環境問題に村自体の抵抗の手段としての協同が現れる。このような 変化は最近、わが社会にでも頻繁に見られる。

キーワード；協同關係、紐帶、町会、두레、유회(結)、御嶽講、産業社会

투 고 : 2008. 8. 31
1차 심사 : 2008. 9. 12
2차 심사 : 2008. 9. 27